2020년 11월 11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코로나 백신 영향 지속된 가운데 기술주 부진

FANG, 반도체, 소프트웨어 부진 Vs. 제약, 산업재, 소비주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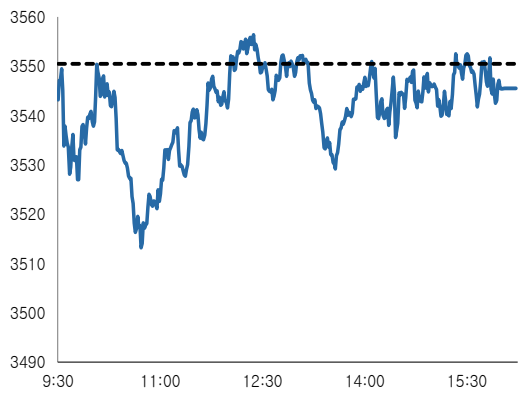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코로나 백신/치료제 영향과 실적 개선율 주목

미 증시는 전일에 이어 코로나 백신 영향을 받아 혼조세로 출발. 그런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확대되며 나스닥이 한 때 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그렇지만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기도 했음. 한편, 전일 급등했던 레저 업종의 경우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약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 지속(다우 +0.90%, 나스닥 -1.37%, S&P500 -0.14%, 러셀 2000 +1.88%)

전일 화이자(-1.33%)와 바이오엔텍(+7.60%)의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에 이어 이번에는 일라이릴리(+2.97%)가 캐나다 엡셀레라와 개발중인 코로나 항체치료제에 대한 FDA 의 긴급사용을 승인 받았다고 발표. 일라이릴리는 이번 치료제가 고위험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 필요성을 낮춰 사망자 추이를 완화 시킬 것이라고 언급. 결국 코로나 백신에 이어 치료제 개발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이 시장에 긍정적. 이 소식에 언텍트 관련 종목은 약세를 이어갔으나, 산업재 업종의 강세를 이끔. 특히 일부 대형 기술주와 소프트웨어 업종은 반발 매수세 유입 불구 하락은 지속. 다만, 레저 업종의 경우 전일 급등의 영향으로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는 등 전일의 극명했던 컨텍트, 언텍트 차별화는 완화

한편, 코로나 백신, 치료제 등으로 기업들의 등락이 이어지는 요인으로는 실적 변화로 볼 수 있음. 언텍트 기업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면, 백신이 현실화 할 경우 이익 개선세가 둔화 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 결국 시장은 추가 부양책 지연 등 많은 이벤트가 남아 있으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한 때 2% 가까이 하락하던 애플(-0.28%)이 장중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이날 자체 프로세서로 구동하는 새로운 맥 컴퓨터를 출시해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았기 때문. 그렇지만, 여전히 향후 마진율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재차 하락 전환 하는 등 변화를 보이자 지수도 장 후반 변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으나, 결국 기업 실적 특히 영업이익률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52.83	+0.23	홍콩항셍	26,301.48	+1.10
KOSDAQ	840.79	-1.22	영국	6,296.85	+1.79
DOW	29,420.92	+0.90	독일	13,163.11	+0.51
NASDAQ	11,553.86	-1.37	프랑스	5,418.97	+1.55
S&P 500	3,545.53	-0.14	스페인	7,711.40	+3.38
상하이종합	3,360.15	-0.40	그리스	651.77	-0.57
일본	24,905.59	+0.26	이탈리아	20,851.58	+0.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기술주, 소프트웨어 부진 Vs. 제약, 산업재 강세

아마존(-3.46%)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 EU가 아마존의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약세 요인이다. 이는 MS(-3.38%), 페이스북(-2.27%), 알파벳(-1.35%)의 하락을 부추겼다. 애플(-0.28%)도 장 초반 여타 대형 기술주의 부진 영향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새로운 맥 컴퓨터 발표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애플에 칩을 제공하던 인텔(-0.35%)은 장중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애플 발표 후 하락 전환했다. 코로나 확산 수혜 업종이었던 NVIDIA(-6.31%)는 물론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4.48%), 인튜이트(-4.96%) 등은 하락을 이어갔다.

일라이릴리(+2.97%)는 항체 치료제 FDA 긴급 승인이 처리되자 상승했으며, 길리어드 사이언스(+2.66%) 등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체도 강세를 보였다. 3M(+3.49%), 허니웰(+2.53%) 등 산업재와 GM(+5.44%) 등 자동차 등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 속 강세를 보였으나, 전일 급등 했던 부킹닷컴(-5.23%), 카니발(-13.09%) 등 여행, 크루즈 업종은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보잉(+5.20%)은 미 교통안전국에서 11월 18일까지 737맥스 승인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며 급등했다. 줌 비디오(-8.94%)은 백신 효과로 낙폭이 확대되었다. 비욘드 미트(-16.94%)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14%	대형 가치주 ETF(IVE)	+1.31%
에너지섹터 ETF(OIH)	-0.03%	중형 가치주 ETF(IWS)	+1.17%
소매업체 ETF(XRT)	+0.57%	소형 가치주 ETF(IWN)	+2.68%
금융섹터 ETF(XLF)	+0.52%	대형 성장주 ETF(VUG)	-1.52%
기술섹터 ETF(XLK)	-1.86%	중형 성장주 ETF(IWP)	-1.4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57%	소형 성장주 ETF(IWO)	+0.87%
인터넷업체 ETF(FDN)	-2.39%	배당주 ETF(DVY)	+1.86%
리츠업체 ETF(XLRE)	+0.55%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0%
주택건설업체 ETF(XHB)	+2.3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4%
바이오섹터 ETF(IBB)	+0.08%	미국 국채 ETF(IEF)	-0.28%
헬스케어 ETF(XLV)	+0.29%	하이일드 ETF(JNK)	-0.03%
곡물 ETF(DBA)	+1.14%	물가연동채 ETF(TIP)	+0.10%
반도체 ETF(SMH)	-3.09%	Long/short ETF(BTAL)	-1.1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55.97	+2.52%	+14.74%	+10.92%
소재	441.71	+1.14%	+6.00%	+6.83%
산업재	722.88	+1.79%	+6.67%	+6.51%
경기소비재	1,224.78	-1.11%	+2.12%	-4.88%
필수소비재	679.08	+1.99%	+2.83%	-0.72%
헬스케어	1,295.95	+0.35%	+5.94%	+2.63%
금융	451.14	+0.73%	+9.33%	+8.45%
IT	2,080.98	-1.94%	+4.54%	-3.56%
커뮤니케이션	210.27	-0.32%	+5.39%	+3.04%
유틸리티	336.42	+1.42%	+2.35%	+4.33%
부동산	227.60	+0.52%	+3.29%	+0.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광군절 매출 추이 및 소비 품목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2% 상승 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1.14%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7.4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미 증시는 전일에 이어 대형 기술주와 소프트웨어 업종이 부진했고, 애플의 자체 칩을 이용한 맥 컴퓨터 발표로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다. 더 나아가 전일 급등했던 금융과 레저 업종이 매물 소화과정을 보인 점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오늘 한국 증시에서 언텍트 관련 종목의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일 급등했던 일부 업종 또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미국의 경기 회복 노력에 기반한 산업재의 강세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광군절 매출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소비 증가는 향후 산업생산 개선으로, 이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매출은 지난해(2,684 억 위안) 보다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5 중 전회를 통해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의미하는 질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중국은 향후 소득증대, 농촌 개발 등을 위주로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광군절 매출 급증 기대는 중국 향 소비 관련주의 강세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언텍트 관련 종목군이 부진할 수 있으나 대 중국 소비주를 비롯해 컨텍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견인 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 고용지표 전월 보다 양호

9 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635.2 만건) 보다 개선된 643.6 만 건을 기록했으나 예상(650.8 만건)을 하회했다. 더불어 전년 동월(704.6 만건) 보다도 크게 부진한 모습이다. 민간 부문 고용자 이직률의 경우는 지난 달 2.3%보다 상승한 2.4%를 기록해 고용시장이 양호함을 보여준다.

10 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104.0)과 동일한 104.0 을 기록했으나 예상(104.8) 보다는 부진했다. 대체로 대선 불확실성과 코로나 재 확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사우디 에너지 장관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

국제유가는 경제 봉쇄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보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 나아가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 수요가 부진할 경우 감산 협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코로나 백신/치료제에 대한 기대에도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 소폭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도 지표 둔화와 코로나 백신/치료제 소식이 충돌해 보합권 등락에 그쳤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3% 강세를 보였으나 브라질 헤알화 등은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경기 회복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3 분기 경기 반등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해 금리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2.46 배)을 하회한 2.32 배, 간접입찰도 12 개월 평균(60.8%)를 하회한 54.8%를 기록해 국채 수요가 약했던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경기 회복 위한 추가 통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자산 매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언급해 상승을 제한했다.

금은 전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와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1.2% 상승했다. 은도 3%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속 강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2%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41.36	+2.66	+9.82
브렌트유	43.61	+2.85	+9.82
금	1,876.40	+1.19	-1.78
은	24.462	+3.21	+0.53
알루미늄	1,908.00	+0.77	+0.13
전기동	6,932.00	+0.23	+1.70
아연	2,645.00	+0.13	+3.06
옥수수	431.00	+3.79	+6.16
밀	608.50	+1.84	+0.08
대두	1,146.00	+3.20	+7.68
커피	110.00	+0.41	+3.72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2.800	+0.08	-0.80
EUR/USD	1.1809	-0.03	+0.80
USD/JPY	105.29	-0.09	+0.77
GBP/USD	1.3261	+0.72	+1.55
USD/CHF	0.9155	+0.27	+0.31
AUD/USD	0.7281	-0.04	+1.63
USD/CAD	1.3036	+0.22	-0.82
USD/BRL	5.412	+0.57	-5.91
USD/CNH	6.5989	-0.26	-1.26
USD/KRW	1115.10	+0.11	-1.68
USD/KRW NDF1M	1117.46	-0.18	-1.2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951	+2.75	+5.17
한국	1.630	+6.50	+2.50
일본	0.045	+2.40	0.00
독일	-0.485	+2.40	+13.5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스페인	0.183	-0.10	+7.50
포르투갈	0.146	-0.10	+6.70
그리스	0.835	-2.80	-5.50
이탈리아	0.761	+0.50	+2.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